

金星社 중앙연구소

“民間기업 첫 研究所”의 공지

천연자원이 넉넉찮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불태 험난한 국제경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수 있는 방법에는 그렇게 넓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게 솔직한 표현이겠다.

60~70년대의 세계가 깜짝 놀란 만큼의 경제성장도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세계경제에 무시못할 주름살을 깊게 지워준 오일쇼크의 후유증에서 아직도 완전히 깨어난 나라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2천년대를 앞둔 현대라는 시간적 상황속에서는 모든 나라, 모든 산업이 생존을 위한 모방을 짜내기에 온갖 지혜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처,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생존과 성장의 발판마련을 위해 전례없는 연구개발부문의 투자확대에 전사적 각종지원을 극대화하고 있다.

195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진공관식 라디오를 생산, 우리

나라 전자공업의 선구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던金星社의 경우에서 우리는 국내기업들의연구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전자공업은 물론이고 기술분야를 통털어 실로 황무지나 다름 없었던 1950년대의 암울했던 시대에 기술개혁의 깃발을 드높이 들었던「金星」 「Gold Star」라는 이미지 만으로도 이 기업이 추구하는 R & D의 지향점을 엿보기에 족하다면 과언이 될까.

金星社중앙연구소는 이러한 배경아래 국내 민간기업으로서 처음으로 1975년 12월 崔順達박사를 초대소장으로 맞아들여 당시 한국과학기술 연구소(현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의 연구원 10여명이金星社본사가 있는 럭키금성그룹빌딩 3층의 작은 방에서 출범했다. 그 모태는釜山공장 생산기술 연구실이었다.

창립한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1976년에 첫 프로젝트



黃賢植 所長

의 결실이 나왔다. 다음아닌 금전등록기 국산제 1호가 그것. 77년부터 78년에 걸쳐 새로 시행된 부가가치세제 실시에 따라 금전등록기의 생산·보급이 필연적으로 뒤따름으로써 값비싼 수입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의 요청이 이 연구소의 신제품 개발 제 1호를 탄생시켰다.

개발과제가 다양해지고 연구인력도 출범당시의 10수명에서 매년 수십명씩 늘어남에 따라本社건물에서 현재의九老3공단으로 이전한 것은 1978년 8월, 이곳이 Gold Star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그 토대를 잡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소는 현재 중앙 연구소를 핵으로 昌原과 龜尾 그리고 平沢에 分所를 각각 설치하여 각 계열별 생산시스템에 맞춘 현지 기술개발지원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게 黃賢植 소장(상무이사)의 설명.

설립이후 지금까지 계열회사에 많은 부분의 기술개발 실적을 넘겨주거나 중앙 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프로젝트를 사업화하여 자체 생산사업부에 이관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이 연구소 주요 연구분야는 크게 ▲컴

퓨터 ▲반도체 ▲자동화시스템 등 3개부문으로 추진되고 있다.

3개주요 연구분야는 소장 밑에 연구개발의 제반지원을맡는 기획부와 9개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별 개발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데 분야별 연구개발목표를 보면

▲컴퓨터분야=퍼스날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를 자체기술에 의해 국산화한 것을 발판으로 워크스테이션, 수우퍼 컴퓨터, 인공지능기기, 次세대 컴퓨터 등 첨단제품 개발을 통한 컴퓨

션) 등 머지 않은 장래에 닥쳐올 각종 자동화 시대에 대비한 시스템의 개발노력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소가 창설후 10여년에 이룩한 높은 연구개발 실적은 여기서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실적을 각종 受賞에 맞추어 연도순으로 일별해 보면-

▲1978년=제 9 회 신개발 및 신모델경진 대회에서 CRT디스플레이 터미날(GDT-9720) 호 상공부장관상 수상.

경진대회에서 마이크로 세탁기로 전자공업진흥회회장상 수상, 제 12회 신개발 및 신모델 경진대회에서 워드프로세서(GTS-8030)로 공업진흥청장상 수상.

▲1982년=제13회 신개발 및 신모델경진대회에서 마이티 컴퓨터(GMC-3010)로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78년이후 지금까지 매년 「신개발 및 신모델경진대회」에서 연거푸 수상의 영예를 안아오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그동안 연구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계속 연구원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장기연수시켜 오고 있으며 대학과 KAIST같은 연구기관에서 산학장학생을 육성하여 졸업후 우리 연구소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黃賢植소장은 이와 함께 海外에 퍼져있는 韓國의 고급두뇌들을 유치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쏟음으로써 첨단기술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다.

『현재의 연구소 시설로는 앞으로의 연구개발기능 활성화에 애로를 느껴 지금 江南區 우면동 교육개발원 앞쪽에서 86년에는 새롭게 꿈을 펼칠 계획으로 새 연구소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84년에 기공식을 가진 이 연구소 건물은 대지 1만여평에 연건평 9천여평의 규모 인데 현재의 박사 6명, 석사 1백59명, 그리고 학사 1백 85명에 달하는 연구인력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어서 제 2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85년의 금성사 전체 연구개발투자는 총매출액 대비 4.6%선에 달하고 있다.

활발한 研究員 国内外연수

86年엔 牛眠洞서 새 꿈 펼쳐

터기술의 완전 국산화를 실현코자 하고 있다.

▲반도체분야=Custom IC 를 독자기술로 개발하여 회사제품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의 토대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분야=HA (홈 오토메이션) OA(오피스 오토메이션) FA(팩토리 오토메이

▲1979년=제10회 신개발 및 신모델경진대회에서 전자오르간으로 상공부장관상 및 기계식VTR 전자공업진흥회회장상 수상.

▲1980년=제11회 신개발 및 신모델경진대회에서 전자식 메모리타자기(GTS-8010)로 상공부장관상 및 비데오 디스크 플레이가 우수상 수상.

▲1981년=제 1 회 전기용품



(주) 금성사 중앙연구소